



크낙산 골짜기가 온통

높고 큰 산, 시인의 관념 속에 존재하는 산

연록색으로 부풀어 올랐을 때 그러니까 신록이 우거졌을 때

인생의 청년기, 여름

그곳을 지나가면서 나는 미처 몰랐었다 (상황)

⇒ 신록이 우거지는 것에 대한 무심함

뒤횈로 가는 길이 온통

사찰 본당 뒤편의 절

주황색 단풍으로 물들고 나뭇잎들

무더기로 바람에 떨어지던 때 그러니까 낙엽이 지던 때

인생이 장년기, 가을

그곳을 거닐면서 나는 느끼지 못했었다. (상황)

⇒ 낙엽이 지는 것에 대한 무심함

이렇게 한 해가 다 가고 눈발이 드문드문 흩날리던 날

겨울, 계절적 배경

양상한 대추나무 가지끝에 매달려있던

나뭇잎하나 문득 혼자서 떨어졌다 (상황-인식)

⇒ 자연의 변화 과정에 대한 인식

존재의 소멸

저마다 한 개씩 돌아나

독립된 개체로 태어나는 인간의 모습

여럿이서 모여서 한 여름 살고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마침내 저마다 한 개씩 떨어져

독립된 개체로 소멸하는 인간의 모습

그 많은 나뭇잎들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상황)

⇒ 자연의 변화 과정에 대한 통찰

존재의 소멸에 대한 안타까움

갈 래 : 자유시, 서정시

성 격 : 사색적, 관조적, 철학적, 반성적, 성찰적

제 재 : 나뭇잎

주 제 : 나뭇잎을 통해 발견한 인생의 의미



특징 :

- ① 자연물을 바탕으로 인간의 삶을 유추함
- ② 제1~3연이 계절의 흐름에 따라 전개됨
- ③ ‘골짜기→길→대추나무→나뭇잎 하나’로 시적 대상이 바뀌면서 화자와 대상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음
- ④ 제1, 2연에서 유사한 구조의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대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화자의 모습을 강조함

해설

‘나뭇잎 하나’를 통하여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시이다.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언급하고 ‘마침내 저마다 한 개씩 떨어져’ 나가는 나뭇잎을 보면서 생성과 소멸에 이르는 인간의 삶을 유추하고 있다.

1연, 2연에서 유사한 구조의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대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1~3연에서 ‘골짜기’ → ‘길’ → ‘대추나무’ → ‘나뭇잎 하나’로 시적 대상이 바뀌면서 화자와 대상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으며, 1~4연에서 ‘그러니까’, ‘문득’, ‘마침내’와 같은 부사를 활용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화자의 인식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특히 주제연인 4연에서는 화자가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자연물의 변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있다.

